

전남도 국유지 무단 점유·불법 건축물 설치 ‘봐주기 의혹’

광양읍 소재 사업장 인근 하천부지 수년간 불법 사용
 광양시청, 2018년 시정완료 처리 불구 현재도 그대로

전남도청 관리구역인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구역의 하천부지를 한 장례식장 업주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주는 2003년도에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소재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승인 받아 운영중 2007년도에 건축용도를 의료시설(장례식장)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청 관리구역인 광양시 봉강면 구역의 하천부지를 장례식장 사업주가 사업장 인접지역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도 광양시청은 건축물위반으로 2회에 행정처분만 하고 2018년도에는 광양시청 건축과에서 시정완료 처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하천부지의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업종의 사업주들은 “우리들의 사업장 부지내에 조그만 콘테이너만 설치되어 있어도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명령 조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천부지(국유지)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해서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도 왜 이렇게 묵인하고 방치하는지 관련자들은 광양시청과 건축주와의 유착이 있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하천담당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본사 취재요청에 “이 하천은 국유지로서 하천부지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므로 이 구역의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전남도청에서는 승인 한적이 없으나 관리구역인 광양시청에서 전남도청과 협의 없이 점유허가를 해줄수도 있다”고 했다.

광양시청 총괄안전과 하천담당에게 해당지역 하천부지 불법사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하천담당 관계자는 “건축주가 사업장 승인후 사업장 인접지역인 하천부지에 공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광양시청에서는 공방으로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승인후 불법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였기에 몇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벌과금을 부과하였다”라고 말했다.



▲적색표시부분- 하천부지(국유지)



▲하천부지 불법건축물

<사진=네이버 지도>

이러 벌과금과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철거를 이행 하였기에 광양시청 하천담당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을 찾아가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사업주 측에 요청하였으며 관련된 부서에도 이행조치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건축과 담당담장은 즉시 해당 사업장에 시행명령을 통보하였다며 최초 시행명령 2회(월1회)이상 통보후 이행되지 않을시

는 이행강제 관계부과금 청구로 처리하겠다고 하나 사업주가 부과금만 납부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다면 광양시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1년에 1회씩 부과한다면 사업주 측에서는 소액의 부과금만 납부하고 불법건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이 불법건축물은 장례식장 본 건물 내부와 연결하여 분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에 이 불법건축물을 내부건물과

연결하여 분향소 용도로 사용된다면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는게 중론이다.

광양시청은 하천부지에 수년동안 불법으로 위험성있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데도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은 광양시청 관계자와 이 사업주간에 유착을 의심할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김현근기자

‘백화점 신축·이전’ 광주신세계, ‘난제’ 금호월드 상인들과 상생방안에 ‘관심’



백화점 신축·이전 추진과 관련, 광주신세계는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유동업계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신축·이전을 위해 제안한 도시계획 입안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건부 승인했다.

광주신세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9가지 조건에 대해 이달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가지 조건에는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가 들어 있다.

광주신세계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은 광주신세계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상인들은 광주신세계가 도시계획도로 83m를 백화점 사업부지로 편입하면 금호월드 고객 차량의 입·출입을 방해하고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우선적으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백화점과 금호월드간 연결다리를 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으나 금호월드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 사업부지 편입시 금호월드 고객 차량 입·출입 방해 영업 지장 반발

백화점-금호월드간 연결다리 놓은 방안 구두 전달...금호월드측 반응無

광주신세계는 또 최근 금호월드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대책위원회에 금호월드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호월드 상인과 상가 소유주들이 각각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와 금호월드 관리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월드 상가 소유주 모임인 금호월드 관리단에 600여명이 가입돼 있고 상인들 모임인 상가총연합회에 300여명의 상인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금호월드 일부 상인은 비공식적으로 광주신세계에 금호월드를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전체 의견으로 보기 어려워 성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와 금호월드관리단은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접점을 찾는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금호월드관리단과 수시로 만나고 있다. 28일까지 요구사항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9000여억원들 투입해 2027년 개장 목표로 현 백화점 옆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봄꽃과 함께 떠나는 **2023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4.30.
 화순고인돌유적지

화순군

화순 고인돌 EDM 페스티벌 *line up*

🕒 4. 29. 토 18:00~

📍 화순 세계거석테마파크



박명수 **원슈타인** **훅(아이키)**